

#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

이종철\*\*

## <차 례>

- I. 서론
- II. 작문 교육에서의 언어 기호에 따른 텍스트 유형
- III. 작문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내용
- IV. 작문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방법
- V. 결론

##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언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작문 능력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식의 확장 속도가 매우 빠른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새로 나온 지식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이 생산한 지식을 공동체에 신속하게 알려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 언어 사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에는 말하기와 쓰기가 있는데, 새로운 지식을 정

---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47회 전국학술대회(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호서대학교

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다 쓰기가 적절하다. 보통 새로운 생각이란 복잡하여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 먼저 글로써 그것을 표현하고 나중에 그것을 단순화하여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말로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발생한다. 요즈음에 많이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도 일반적으로 먼저 글로써 쓰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단순화한 도식 등을 만들어 그 도식 등과 함께 말로써 발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때 그 표현 수단을 말 또는 글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러한 선택은 말하기와 쓰기가 서로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또한 서로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두 활동을 각각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통합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함께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쓰기를 포함한 모든 언어 사용은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맥락 속에서 수행된다. 언어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행위는 다양한 언어 표현들 중에서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선택하는 전략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작문의 필자가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한다.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필자는 자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의 유형-장르를 선택한다.

장르는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유용하다고 공인한 텍스트의 유형을 말한다. 장르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관습화된 텍스트의 표현 방법-문체를 지니게 된다. 필자가 선택한 장르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관습화된 문체가 있는 것이다. 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어휘’ 영역이다. 필자가 선택한 장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자는 그 장르에 관습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는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어서 그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것들을 실제 글쓰기에서 잘 구사해야 한다.

대체로 작문의 필자는 작문의 맥락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작문 텍스트의 유형을 선택한 후에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등의 단계들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표현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어휘 선택의 문제는 작문의 맥락, 텍스트의 유형, 표현 전략 등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을 논의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작문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의 유형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작업을 한다.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텍스트 유형에 따라 그 유형에 적절한 어휘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어휘 선택 전략을 찾아본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작문에서의 어휘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와 ‘작문’ 영역에서 어휘 교육과 관련된 지도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끝으로 이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작문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sup>1)</sup>

## II. 작문 교육에서의 언어 기호에 따른 텍스트 유형

텍스트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분류하는 기준으로 는 흔히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 전달하는 주제, 사용하는 미디어, 언어 기호 등이 제시된다. 여기서는 오늘날 새로운 매체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언어 기호를 사용하는 양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언어 기호를 택하겠다.

언어 기호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나누어지므로 언어 기호에 따라

1) 본고에서는 ‘작문’과 ‘쓰기’가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가리키지 않고, 글을 쓰는 활동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작문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평가’ 부분은 언어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다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다루지 못한다.

텍스트 유형을 분류하면 음성 텍스트와 문자 텍스트 두 유형으로 양분되는데, 흔히 이 양자를 각각 구어와 문어라고 부른다.<sup>2)</sup>

국어교육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음성언어로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하는 활동이고, 독서와 작문은 문자언어로 필자와 독자가 의사소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언하면 말하기와 듣기는 음성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이고, 독서와 작문은 문자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이다.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 기능으로서 공통적 특성을 지니지만, 말하기는 음성 텍스트를 생산하고 쓰기는 문자 텍스트를 생산하므로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말하기와 쓰기를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의 대면성의 유무이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화자가 청자를 시각적으로 대면한 상황에서 수행되고, 쓰기는 필자가 독자를 머릿속에 설정하여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다.

생산자와 수용자가 대면하여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상 대화와 같은 전형적인 구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방법을 구어체라 하고, 생산자가 수용자와 대면하지 않고 일방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전문적인 설명문 같은 전형적인 문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방법을 문어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구어와 문어의 세부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민현식(1994, 2007)을 들 수 있다.

(가) 구어체 구어 : 일상대화, 강의 언어, 무원고 즉석 연설이나 토크쇼 류의 대담프로그램의 언어이다.

- 2) 민현식(1994), 장경현(2003) 등에서는 구어와 문어를 텍스트의 개념으로 보고 음성과 문자라는 표현 수단에 의해 구어와 문어를 구별한다. 김미형(2004)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구분은 그 표현 수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 환경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하고, 구어는 “말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표현한 언어”이고 문어는 “글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표현한 언어”라고 규정한다.
- 3)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별하는 특징은 해당 텍스트의 표기, 어휘, 통사, 텍스트, 화용적 상황 등 여러 층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텍스트를 전형적인 것과 비전형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전자만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전자와 후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구어체와 문어체의 개념과 특성이 달리 설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ㄴ) 문어체 구어 : 글이나 원고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읽는 형식을 취하는 연설문, 보도어-글이 전제되는 구어이다.
- (ㄷ) 구어체 문어 : 소설 대화문, 시나리오, 희곡, 광고문처럼 대화문의 구어체가 문자화하여 나타나는 문어이다.
- (ㄹ) 문어체 문어 : 전형적 문어체로 구어 상황이 전제되지 않고 논설문, 설명문, 교과서 문장, 기사문처럼 읽거나 씀을 전제로 한 문어이다.

구어와 문어에 각각 구어체와 문어체를 결합하여 세부 유형을 4가지로 이처럼 분류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분류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출현한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의 표현 수단으로 언어 이외에 다양한 시청각 표현 수단을 쉽게 구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와 비언어를 통합하여 표현하여, 언어만 가지고 표현하던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뉴미디어의 보급으로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적인 소통이 매우 수월해지고 화상 통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언어가 중심적 표현 수단이 되는 의사소통의 경우에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면대면 상황 속에서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수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문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필자와 독자가 대화하듯이 글을 쓰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어서, 위의 4가지 유형에서 ‘(ㄹ) 문어체 문어’의 영역이 축소되고 ‘(ㄷ) 구어체 문어’의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김정자(1999)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의 기사문을 분석하면서, 이 기사문은 문자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그 기사문의 문체는 반말투의 구어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논하고, 말하듯이 글을 쓰는 현상은 중·고등학교 참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인다.<sup>4)</sup> 이러한 주장은 ‘문어체 문어’의 영역이 축소되고 ‘구어체 문어’가

4) 김정자(1999)에서 잡지 기사의 구어적 특징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어휘상 특징 :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감탄사, 비속어, 은어, 유행어, 축약형, 구어 발음대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구어와 문어의 세부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에 ‘세대’라는 변인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경주(2000)에서는 필자가 글로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의 특성을 따르고 있는 텍스트를 ‘구어체 텍스트’와 구별하여 ‘구어적 텍스트’라고 부르고, ‘구어적 텍스트’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르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의 글’을 든다. 그리고 ‘구어적 텍스트’의 필자는 자신의 글이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글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상대와 직접 대면하여 말을 건네는 듯한 ‘말’의 특성을 지니는 언어를 사용하고, ‘구어적 텍스트’는 자연스러운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과 닮게 한 글이라고 설명한다.<sup>5)</sup>

‘구어적 텍스트’의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편지’ 글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종이에 편지를 쓰는 경우에 편지의 필자는 즉각적으로 편지의 독자와 의사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독자와 마주 대면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말하는 식으로 글을 쓴다. 물론 ‘구어적 텍스트’에는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편지’보다 구어적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구어적 텍스트’의 이러한 특징을 전통적인 ‘편지’ 글쓰기의 연장선상에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어적 텍스트’를 ‘(ㄷ) 구어체 문어’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새로운 매체의 영향을 고려하면 민현식(1994, 2007)의 분류는 그 체계나 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새로 수정한 구어와 문어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sup>6)</sup>

- 
- 쓴 어휘, 어법에 어긋난 조어 (2) 통사상의 특징 : 조사의 생략, 간략형의 문장 (3) 텍스트상의 특징 : 반말, 문답법을 이용한 대화체,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
- 5) 김경주(2000)에서는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으로 축약어의 사용, 표음적 표기, 표기의 혼란, 유행어의 사용, 비언어적 기호의 사용, 의성어 삽입, 개성적인 어투의 반영, 용언의 생략, 잦은 휴지, 띄어쓰기의 거부, 단어와 표현의 잦은 반복, 길게 이어지는 문장, 어투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같은 글쓰기 방식을 단지 국어의 오용 현상으로 보거나, 교정 대상으로 파악하기보다 ‘매체 환경에 따른 글쓰기’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논한다.
- 6) 장경현(2003)에서는 텍스트의 분류에서 문자나 음성이나 하는 매체를 떠나 텍스트가 어

(ㄱ') 구어체 구어 :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하게 의식하고 생산한 구어

(ㄴ') 문어체 구어 : 면대면 상황을 강하게 의식하나 쌍방향 의사소통을 약하게 의식하고 생산한 구어

(ㄷ') 구어체 문어 :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하게 의식하고 생산한 문어

① 음성언어를 전사하는 식으로 표현한 문어<sup>7)</sup>

② 음성언어처럼 표현하려고 하는 문어

(ㄹ') 문어체 문어 :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약하게 의식하고 생산한 문어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 구어와 문어를 각각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어와 문어를 통합적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즉 4유형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혼합된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심적 유형과 부수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중심된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위의 유형 중에서 ‘(ㄱ)’ 구어체 구어’는 문어와 관계가 없으므로 작문 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ㄴ)’ 문어체 구어’는 일반적으로 음성언어로 실현되기 전에 문자언어 텍스트가 작성되므로 작문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작문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텍스트의 유형들 중에서 작문 교육에서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은 문어의 특성이 강한 것이다. 작문 교육에서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 있는 유형을 순서대로 제시하며 이것에 대하여 상술해 보겠다.

첫 번째로 ‘(ㄹ)’ 문어체 문어’를 들 수 있다. 이 텍스트 유형에는 음성

면 장면, 상황, 맥락에서 생성되는가에 따라 그 양식이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텍스트의 상황 의존성이라고 논한다. 그리고 문어에서 관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구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습적 표현은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텍스트의 양식을 음성이나 문자니 하는 매체로 따지지 않고 보수성과 비보수성으로 먼저 양분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 7) 구어체 문어 ①의 경우에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한 의식’은 구어체 문어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어체 문어에 등장하는 인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언어의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유형에는 전통적인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 보고문, 논증문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ㄷ’ 구어체 문어’ 중에서 ‘②’ 유형을 들 수 있다. 이 텍스트의 유형에는 음성언어만을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문자언어를 사용할 때의 일반적인 특성—기록성, 시간성, 시각성 등, 그리고 ‘문어체 문어’에서의 어휘적 특성이 반영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먼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글—편지문, 축하문, 항의문, 식사문 등을 들 수 있고, 이어서 전통적인 문어체 문어 중에서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글—주로 젊은 세대를 독자로 하는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ㄴ’ 문어체 구어’를 들 수 있는데, 이것에는 음성언어로 전달하기 위한 문자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자언어 사용상의 특징—어휘, 문법, 텍스트 층위에서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다. 이 유형에는 연설문, 방송 보도문,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것 중에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것 등이 있다.

네 번째로 ‘ㄷ’ 구어체 문어 ①’를 들 수 있는데, 이것에는 음성언어를 문자언어로 전사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자언어 사용상의 특징 중 어휘의 형태, 표기법 등이 반영될 수 있다. 이 유형에는 각종 대본에 쓰인 일상대화문, 구술 기록문 등이 있다.

작문 영역에서 이 4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지도할 때 이것들의 표현 방법—문체에 대하여 지도를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라 문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어휘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게 된다.



### Ⅲ. 작문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내용

#### 1. 어휘 교육의 내용

어휘 능력은 단어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적 용법 등의 지식을 가지고, 단어들을 언어 표현과 이해에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흔히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작문 능력에서의 어휘 능력은 작문에 필요한 단어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적 용법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작문을 할 때에 단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먼저 작문에 필요한 어휘의 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필자가 민현식(1994, 2007)를 수정하여 제시한 분류는 작문 교육에서의 어휘사용상의 특성을 논의하는 데 유용하다. ‘문어체 문어’에 쓰이는 어휘 중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의 어휘 지도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 있게 마련이므로, 먼저 ‘문어체 문어’의 어휘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어휘적 특성에 대하여 노대규(1996: 39-100)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노대규(1996)에서는 ‘문어’와 ‘구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문어’와 ‘구어’의 개념은 본고의 ‘문어체 문어’와 ‘구어체 구어’의 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sup>8)</sup>

첫째로, 구어에서는 어휘, 종결 어미, 연결 어미의 사용에서 주로 비격식적 어휘가 많이 쓰이나, 문어에서는 주로 격식적 어휘가 많이 사

---

8) 노대규(1996)에서는 구어와 문어를 텍스트 개념으로 보고, 구어와 문어를 각각 격식적과 비격식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비격식적 구어와 격식적 문어 자료를 주로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문법적 특성을 밝히려고 한다고 했다.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결과를 한국어 구어와 문어 전체의 일반적 특성으로 제시하려는 점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비격식적 구어와 격식적 문어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종류가 본고의 ‘구어체 구어’와 ‘문어체 문어’에 해당하는 것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노대규(1996)의 ‘구어’와 ‘문어’의 특성을 본고의 ‘구어체 구어’와 ‘문어체 문어’의 특성으로 인용해 보는 것이다.

용된다.

둘째로, 구어에서는 부가어, 지소어, 존대어, 유아어 등이 쓰이는 일이 있으나, 문어에서는 이것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

셋째로, 구어에서는 관용어, 비속어, 욕설어, 금기어 등이 종종 직접 쓰이는 일이 있으나, 문어에서는 관용어의 경우 일반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비속어 등의 경우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넷째로, 구어에서는 은밀어, 두자어, 혼합어, 축약어, 유행어 등이 종종 쓰이는 일이 있으나, 문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다섯째로, 구어에서는 전문어가 쓰이는 경우가 적은 데에 비하여, 문어에서는 이것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로, 구어에서는 비표준어가 쓰이는 일이 종종 있으나, 문어에서는 주로 표준어가 사용된다.

앞에서 인용한 내용에 의하여 ‘문어체 문어’에서의 어휘 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격식적 어휘, 전문어, 표준어 등이 주로 쓰이고, 관용어의 경우 일반적인 표현이 더 많이 쓰이고, 비속어 등의 경우 이것에 대신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주로 쓰인다는 것이다. ‘문어체 문어’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연구될 여지가 있으나,<sup>9)</sup> ‘문어체 문어’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작문을 지도하는 데에 이러한 어휘 사용상의 특성을 지도 내용으로 삼을 수 있겠다.

문자언어를 사용하지만,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하게 의식하고 음성언어로 표현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하려는 ‘구어체 문어<sup>2)</sup>’에서는 문어체와 구어체가 혼용되는데, 이 두 가지의 어휘적 특성을 작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혼용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의 작문 상황에는 필자와 독자가 속한 세대상의 특징,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의

9) 구어와 문어에서의 어휘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먼저 어휘의 전반적인 양상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광해(1993 : 140)에서는 어휘의 양상을 변이와 팽창이라는 두 축으로 먼저 나누고 그것들을 각각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노대규(1996)에서의 ‘관용어’는 소위 ‘숙어’만을 다루고 있고, 속담이나 한자 관용어는 다루지 않았다. 한자 관용어의 경우에는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많이 쓰인다.

사용에 대한 호감도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결국은 필자가 독자와의 면대면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문어체 구어’에서의 어휘적 특성은 ‘구어체 문어②’의 경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구어체 문어②’와 ‘문어체 구어’의 지도 내용으로는 ‘문어체 문어’의 어휘적 특성과 ‘구어체 구어’의 어휘적 특성을 함께 지도하되, 생산하는 텍스트가 문자언어 텍스트인가 음성언어 텍스트인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사용의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구어체 문어①’에서는 구어체에서 주로 쓰이는 어휘들의 문자적 형태와 표기법을 익히는 것을 지도 내용으로 삼는다.

작문의 필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 텍스트의 관습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관습적인 표현 방법에는 어휘의 관습적인 사용 양상이 포함된다. 작문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이 담당하는 지도 내용으로 첫 번째 것은 학생들이 작문에서 담당하는 텍스트 유형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의 특성을 알고 이 지식을 작문에 잘 활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휘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위의 작문 교육의 지도 내용은 시대적 특성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작문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작문의 맥락을 분석할 때 새로운 매체의 보급으로 면대면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해졌다는 요인을 고려하고,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하여 필자가 의식하는 정도’를 설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어휘 등을 선택하는 표현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과정에서의 어휘 교육의 내용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활동이 행해지는 구체적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실제적인 텍스트의 생산을 지도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이것은 종래의 과정 중심의 쓰기 지도와 함께 텍스트(장르) 중심의 쓰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에서는 학년별로 지도해야 할 텍스트 유형의 수준과 범위가 진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쓰기’ 영역에서의 어휘 교육은 이러한 목표와 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해야 할 텍스트 유형들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학습한 다음에는, 텍스트 장르의 관습적인 표현 방법인 ‘문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어휘와 관련된 내용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있어야겠다. 국어과의 ‘작문’ 영역에서는 ‘쓰기’ 영역을 심화·발전시킨 과목이라서 학년별로 지도 내용이 진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에서 어휘와 문체의 지도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진술한 부분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다.

내용 학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학년	(1)	낱말, 문장을 받아쓰기
2학년	(2)	요청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읽는 이의 생각, 태도를 고려하여 쓰기
	(3)	제안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읽는 이를 배려하는 친근한 표현 사용하기
3학년	(3)	읽는 이와 내용을 고려하여 알맞은 낱말 선택하기
	(4)	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
4학년	(2)	제안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5학년	(1)	기사문의 특성 이해하기
	(3)	사과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6학년	(2)	연설문의 특성 이해하기/ 청중을 고려하여 쓰기
	(3)	축하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여 쓰기
	(4)	기행문의 특성 이해하기/ 읽는 이의 경험, 관심, 흥미 고려하기

내용 학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9학년	(1)	홍보하는 글의 구성 방법과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4)	문체의 개념, 문체의 효과 이해하기/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로 표현하기
	(5)	영상 언어의 특성 이해하기
10학년	(1)	전기문의 일반적 특성 이해하기
	(2)	해석하는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 고려하기
	(3)	시평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4)	식사문의 유형, 기능, 특성 이해하기
	(5)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글의 일반적 특성 이해하기
7학년	(1)	설명문의 특성,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
	(4)	독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표현 전략 이해하기/ 비유나 강조 등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쓰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과 상투적인 표현을 찾아 고쳐 쓰기
	(5)	수필의 내용적·형식적 특성 이해하기
8학년	(3)	독자 투고문 등 의견을 제시하는 글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4)	온라인 대화, 문자메시지, 전자 우편의 매체적 특성 이해하기/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속어, 비어, 성차별적 언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
	(5)	자서전의 구성 및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위의 도표의 내용을 보면, 현행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유형과 그 특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실제적인 쓰기 활동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지도 내용의 진술을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

첫째, 위의 도표에 나열된 ‘내용 요소의 예’ 부분을 어휘 지도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에서 어휘 지도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내용 요소의 예’ 부분에 ‘성취 기준’의 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한다고 진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텍스트의 특성에 ‘어휘상의

특성'도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텍스트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보면, 해당 텍스트 유형의 개념, 내용 생성과 조직 등은 상술하고 있으나 해당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술한 부분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은 학습 자료의 편찬이나 실제 교실 수업 등에서 어휘 교육을 소홀히 다루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 '3학년 (3)'의 '성취 기준'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에 "읽는 이와 내용을 고려하여 알맞은 낱말 선택하기"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러한 진술은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기'가 '감사하는 글'에서만 강조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내용 요소의 예'에서 알맞은 낱말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글의 종류'를 첨가하여 모든 글의 유형에서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0)</sup>

셋째, '9학년 (4)'의 '성취 기준'에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며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에 "문체의 개념, 문체의 효과 이해하기/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로 표현하기" 등이 진술되어 있다. 어휘의 선택 등을 포함하는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여 글을 쓰는 일은 모든 글의 종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성취 기준'이나 '내용 요소의 예'에서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이라는 특정한 글의 종류를 대신하여 일반적인 '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1)</sup>

넷째,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텍스트의 여러 유형-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온라인 대화, 게시판의 글, 댓글 등에 대한 진술이 '8

10) 교육과정 해설집에서는 "이 성취 기준은 알맞은 낱말을 선택하는 능력이 글쓰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글쓰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알맞은 낱말의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설명을 기술한다. 어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낱말 사용'을 '감사하는 글쓰기'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항목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교육과정 해설집에서는 "이 성취 기준은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로 표현할 때, 글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라고 기술하고, 문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기술한다.

학년 (4)’에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인터넷을 흔히 사용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 유형들에 대한 진술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 우편, 문자 메시지 등은 초등학교에서 지도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본다.

다섯째, 새로운 매체의 보급으로 면대면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해졌다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하여 필자가 의식하는 정도’를 설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어휘 등을 선택하는 표현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집에 명시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작문’ 영역에서는 ‘가. 내용 체계’에서 글의 유형을 목적, 제재, 양식, 매체에 따라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나. 세부 내용 (3) 글의 유형’에서는 ‘가. 내용 체계’에서의 목적에 따른 5가지 유형들—정보 전달을 위한 글, 설득을 위한 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글, 자기 성찰을 위한 글, 학습을 위한 글—의 각각에 속하는 세부 유형들을 나열했다. 새로운 매체의 보급으로 작문의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였지만, 글을 쓰는 목적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글의 유형 분류는 보편성이 있겠다. 즉 새로운 매체로 말미암아 발생한 유형들도 이 5가지 유형의 세부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런데 ‘내용 체계’에서의 매체에 의한 분류는 인쇄 매체와 다중 매체 2가지로 되어 있다. 흔히 인쇄 매체의 상대어로 전파 매체를 들고, 다중 매체에는 전통적인 라디오는 제외되므로 인쇄 매체와 다중 매체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에 따른 텍스트의 유형을 나누어서 각 텍스트 유형의 특성을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물론 각 텍스트 유형의 지도에는 어휘상의 특성 지도도 포함되어야 한다.

작문의 지도 내용 부분에서 어휘 지도와 관련된 진술은 구체적인 맥락과 텍스트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휘 선택이 당연히 포함되는 형식으로 매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작문’ 영역의

진술 자체가 ‘쓰기’ 영역의 진술에 비하여 매우 소략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작문의 지도 내용 중에서 어휘와 문체의 지도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진술한 부분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다.

영역 \ 내용	세부 내용
(1) 지식	(다) 작문의 맥락 ② 작문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글의 내용 선정, 조직과 전개,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③ 사회·문화적 상황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장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2) 기능	(가) 작문의 맥락의 파악 ③ 작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문의 관습을 파악한다. (마) 작문 내용의 표현 ① 작문 맥락과 작문 내용에 적합한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여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③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작문 내용에 효과적이고 개성적인 문체로 표현한다.

교육 과정 ‘작문’ 영역에서는 글쓰기의 전체 과정에서 ‘맥락’을 항상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글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 수정 등 전체 과정에 ‘맥락’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맥락’을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로운 매체의 보급으로 면대면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해졌다는 요인은 사회적 맥락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요인은 필자의 표현 전략에도 영향을 주므로,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를 설정하여 그 설정한 정도에 따라 어휘 등을 선택하는 표현 전략을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 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집에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 요인과 표현 전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2)</sup>

12)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의 본질’ 부분에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작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작문의 실제’ 부분에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글쓰기’의 세부 설명 부분이 있어 새로운 매체로 인한 작문의 변화를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 IV. 작문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방법

어휘의 지도 방법은 교육 내용이나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수업 활동의 중심—교사 또는 학생—에 따라,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의 통합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여기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 간의 통합과 관련하여 어휘의 지도 방법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최근 언어 교육의 동향 중의 하나는 언어 기능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간의 통합적 지도를 강조하다보면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 그리고 음성 언어 사용과 문자 언어 사용을 분리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나 언어 기능들 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므로, 언어 기능 간의 통합 지도를 강조한다고 하여 각 기능들이 지닌 고유한 부분을 지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각 기능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별도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들 부분들도 때로는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이재승 편, 2004 : 50).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부분 중 ‘가. 교수 학습 계획’에서 개별적 지도와 통합적 지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3)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작문에서의 어휘 지도 방법의 경우도 그 고유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개별적 지도를 하고, 연관성이 강한 내용은 통합적 지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sup>13)</sup> ‘II장’에서 살펴본 작문 교육에서 지도해야 할 4가지 텍스트 유형도 그 유형의 특성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진다. 문어체 문어의 생산에 대해서는 음성언어 지도 영역에서 거의 다루지 않으므로, 작문 영역에서 이것의 생산에 대하여 거의 전전으로 지도해야 할 것인데, 독서 영역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유형의 경우 화법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두 영역을 통합할 때에 ‘구어체 문어 ②’에서는 작문 영역의 비중이, ‘문어체 구어’와 ‘구어체 문어 ①’에서는 화법 영역의 비중이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작문에서의 어휘 지도 방법으로서의 개별적 지도와 통합적 지도에 대하여 좀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해 어휘는 언어 텍스트의 수용자가 주어진 언어 텍스트들을 이해할 때 사용이 가능한 어휘를 말하고, 표현 어휘는 텍스트의 생산자가 언어 텍스트들을 생산할 때 사용이 가능한 어휘를 말한다.<sup>14)</sup>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에 속하게 되는데, 이해 어휘의 양은 표현 어휘의 3~5배에 달한다고 본다. 어휘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표현하지 않은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충우, 2001 : 479).

이해 어휘의 양이 표현 어휘의 양의 몇 배에 이른다는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서 이해 어휘의 경우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 주는 단서들이 텍스트의 문맥에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는 수용자는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에 그 단어 주변의 문맥 단서를 활용하여 그 의미

13) 연관된 영역과 내용을 함께 지도하는 것을 그 정도나 방식에 따라 연계 지도와 통합 지도로 나눌 수도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 둘을 모두 합쳐 통합적 지도라 부른다.

14) 김광해(1993 : 57)에서는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자기가 직접 쓰지는 못해도 그 의미나 용법을 알고 있는 어휘를 이해 어휘라고 하여, 수동적 어휘, 획득 어휘라고도 말한다. 말하거나 글을 지을 적에 사용이 가능한 어휘를 사용 어휘라고 하며 능동적 어휘, 발표 어휘라고도 말한다.

를 추측해 보고 독해를 진행하면서 그 추측한 의미를 검증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검증하여 알게 된 경우도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생산자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맥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자는 이해할 때보다 표현할 때에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고 있어야 하므로, 표현 어휘의 양이 이해 어휘의 양에 비하여 몇 배나 적게 되는 것이다.<sup>15)</sup>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양의 차이를 활용하여 지도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가 조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경우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구분하여 조사되어 있어야 어휘의 개별적 지도가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미 되어 있으면 교수자는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수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여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양적 차이를 알아내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언어 사용의 고유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문어체 문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사용하지만 글을 써서 표현하는 데에는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어휘들을 사용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개별적 지도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이때 제시한 어휘들

15) 표현 어휘의 양이 이해 어휘의 양에 비하여 이렇게 적다는 주장은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연구에 의해 그 타당성이 보완될 수 있겠다. 기억은 저장과 인출도 구분되고, 인출은 보통 재인(recognition)과 회상(recall)으로 구분된다. 재인의 경우 재인되는 단어가 이미 눈앞에 있어서 그 자체로 인출의 단서 역할을 하지만, 회상의 경우 학습한 단어가 눈앞에 없어서 재인보다 더 많은 인출 작업을 해야 한다(정명숙 역, 1999 : 343-4). 텍스트의 단어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회상보다 재인이 많이 작용하고,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에는 재인보다 회상이 많이 작용하므로, 표현 어휘의 양이 이해 어휘의 양에 비하여 적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6) 이 지도 방법은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일반적인 차이를 활용한 것인데, 학생들에게 특정 텍스트를 읽고 표현 어휘에 능숙하지 않은 어휘를 찾아 그것들을 사용하여 작문을 하게 하면 그 방법은 통합적인 방법에 속한다. 여기서 살펴보는 작문에서의 어휘

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미 지도를 그려보게 하는 것이 좋다.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할 경우에 이해하는 경우보다 어휘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하고, 말하는 경우보다 글을 쓸 때에 더욱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하므로 쓰기의 경우에 말하기의 경우보다 어휘에 대하여 아는 정도가 높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문에서의 어휘의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자질분석법이 다른 기능 영역에서보다 더 적합한 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미자질분석법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단어들을 특정 의미자질들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단어의 뜻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듣기 어휘, 말하기 어휘, 읽기 어휘, 쓰기 어휘의 선형적인 순서로 대체로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쓰기 어휘의 사용이 가능해지면 이들 어휘들은 회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읽기 어휘는 종종 듣기, 말하기, 쓰기 어휘에 의해 강화되며, 듣기 어휘가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에 추가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단어를 표현 어휘로 사용하려면 표현하기에 쉽게 인출될 수 있도록 이해 활동을 통해 적합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sup>17)</sup> 이에 어휘 지도는 네 영역의 어휘를 모두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네 영역 이외에 ‘문법’, ‘문학’ 영역과 연계하는 통합적 지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언어활동의 통합은 흔히 말하기와 듣기를 음성 언어 활동으로, 읽기와 쓰기를 문자 언어 활동으로, 말하기와 쓰기를 언어표현 활동으로, 듣기와 읽기를 언어이해 활동으로 어울려 이루어진다. 그런데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종종 4가지 언어활동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수행되므로 가능하면 4가지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통합적 지도가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방

---

교육의 개별적 지도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영역과 연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는 작문 영역에서의 고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용을 개별적 지도의 대상으로 삼겠다.

17) 이 부분은 김명순(2003)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김명순(2003)은 Irvin(1998), Crowder(1976)을 인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침의 지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안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주제나 유형의 텍스트를 수집하여 읽고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들의 의미, 용법, 특성 등을 학습한다. 둘째, 읽기에서 학습한 어휘 중에서 쓰기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를 조사한다. 셋째, 앞에서 조사한 어휘에 대하여 그것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넷째, 조사한 어휘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사전을 찾아보고, 의미 지도를 그리는 등의 활동을 한다. 다섯째, 조사한 어휘들도 고려하여 텍스트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어휘들을 사용하여 글쓰기를 한다. 여섯째, 글을 쓰면서 또는 글을 다 쓴 다음에 어휘 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문법 영역에는 단어의 의미, 형성 규칙, 유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언어활동 영역에서 학습한 어휘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영역과 문법 영역을 통합하여 어휘 지도를 할 수 있겠다. 문학 영역에서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단어 사용을 잘 다루고 있으므로, 이것과 관련된 어휘 사용에 대하여 쓰기 영역에서 지도할 때 문학 영역과 통합하면 효율적이겠다.

작문에서의 어휘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창의적인 어휘 사용을 지도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유추’ 전략을 활용하도록 하고, 단어형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한 후에도 이 지식을 ‘유추’ 전략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이종철, 2000 : 176). 창의적인 어휘 사용의 지도는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첫째, 듣기 또는 읽기 활동에서 학습한 신조어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형성하는 규칙의 유형을 알아보게 한다. 둘째, 그 규칙을 문법 영역에서 학습한 단어형성규칙과 비교해보게 한다. 셋째, 그 규칙을 활용하여 새말을 만들고 쓰기 활동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V. 결론

본고의 논제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에 대하여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의 보급으로 면대면, 쌍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작문의 새로운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텍스트 유형과 문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문 교육에서는 문자언어 텍스트와 관련된 모든 텍스트 유형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때 텍스트 유형에 적합한 어휘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

둘째, 어휘 선택 전략은 표현 전략에 속하는데, 표현 전략은 작문의 맥락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면대면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해졌다는 사회적 맥락은 필자의 표현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필자는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를 설정하여 그 설정한 정도에 따라 어휘 등을 선택하는 표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에서나 교육과정 해설집에서 텍스트 유형에 따른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매우 드물므로, 좀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상술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여러 유형의 텍스트에 대한 진술이 ‘8학년’에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각각의 유형들을 사용하는 발달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분산되어 진술해야 한다. 또한 ‘쓰기’ 영역과 ‘작문’ 영역 모두에 새로운 사회적 맥락, 표현 전략 등을 반영하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해 활동에는 사용되지만 표현 활동에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지도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통합적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가능하면 많은 영역들이 관련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본고의 논제인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은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그

논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논제를 접근하는 관점과 관련이 있는 학문으로서는 인지심리학, 언어학, 문학, 문체론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문체론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했다. 본고의 논의는 좀더 다양한 접근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좀더 깊이 있는 언어 사용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수업 현장에서의 실험이 더 수행되어야 한다.\*

---

\* 본 논문은 2011. 2. 22. 투고되었으며, 2011.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미래엔 컬처그룹.
- \_\_\_\_\_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 미래엔 컬처그룹.
- \_\_\_\_\_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미래엔 컬처그룹.
- 김경주(2000),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과 쓰기 교육적 의의”, 『국어교육학』 11.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명순(2003), “어휘력의 재이해와 지도 방법”, 『청람어문교육』 27.
- 김미형(2004),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5.
- 김정자(1999), “잡지 기사의 구어성 분석—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7.
-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83.
- \_\_\_\_\_ (2007), “구어적 통용과 문어적 오용”, 『문법연구』 6.
- 신명선(2004),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3.
- 이재승 편(2004), 『아이들과 함께하는 독서와 글쓰기 교육』, 박이정.
- 이종철(2000), “창의적인 어휘 사용 능력의 신장 방안”, 『국어교육』 102.
- 이충우(2001), “국어 어휘 교육의 위상”, 『국어교육학』 13.
- 장경현(2003), “문어/문어체·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의미학』 13.
- 정명숙 역(1999), 인지발달, 나남출판, Flavell, J. et al.(1993), Cognitive Development, 3rd.



## <초록>

###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

이종철

본고의 논제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에 대하여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새로운 매체의 보급으로 면대면, 쌍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해져서, 이것은 작문의 새로운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텍스트 유형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을 지도해야 한다.

둘째, 필자는 ‘면대면 상황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하여 의식하는 정도’를 설정하여 그 설정한 정도에 따라 어휘 등을 선택하는 표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에서 텍스트 유형에 따른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좀더 명시적으로 상술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텍스트의 여러 유형에 대한 진술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분산되어 진술되어야 한다. ‘쓰기’ 영역과 ‘작문’ 영역 모두에 새로운 사회적 맥락, 표현 전략 등을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휘 지도 방법에서 많은 경우에 통합적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가능하면 많은 영역들이 관련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본고의 논제에 대하여 여기서는 주로 문제론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했다.

**【핵심어】** 면대면 상황, 쌍방향 의사소통, 사회적 맥락, 어휘 교육, 표현 전략, 통합적 지도

<Abstract>

## Teaching Writing and Teaching Vocabulary

Lee, Jong-chul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First, two-way communication became easy, due to the distribution of new media today. This also has made a new social context for writing. Therefore, we should teach how to use appropriate vocabulary in the new-made text types.

Second, writers have to set the conscious level of face-to-face situation and two-way communication and next, should learn the expression strategy of choosing vocabulary etc., according to the conscious level.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should be described in detail in the 'writing field'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text types which utilize the new media, should also be stated more detailedly and the statements have to appropriate to their development stages. New social context and expression strategy need to be stated.

Finally, in many cases, it is necessary to practice an integrated method in teaching vocabulary. In doing this, it is better to connect many fields as far as possible.

**【Key words】** two-way communication, social context, expression strategy,  
integrated method